



환율과 해외펀드 선택 방법

외환은행 영업부WM센터 PB팀장 | 김범석

여자의 마음과 개구리가 튀는 방향 그리고 환율과 주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다른건 모르지만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재산을 늘리는건 아마 땅 짚고 헤엄치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바꾸어 말하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싶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의 상승 영향 못지 않게, 우리들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변수 중의 하나가 환율의 문제일 것이다. 예전에는 수출이나 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나 피부에 와 닿았던 문제가,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서 이미 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되어버렸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해외 유학 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이번 여름 휴가를 해외여행으로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여유자금을 해외펀드로 가입하고 있는 예금자들 모두에게 환율의 상승추세는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락하는 주식 가격이나 폭등하는 유가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이면의 원인을 제공하는 숨겨진 환율의 막대한 영향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지만, 고대하던 경제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갈수록 상황은 꼬여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더욱이 성장의 동력을 해외수출에서 찾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높은 환율 정책을 지지했던 정부도 최근의 폭등하는 유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협에 직면하자 그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연초 대다수의 경제연구 기관들이 올해 원달러 예상환율을 900원대 초반, 심하게는 900원 아래로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방향이 바뀌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환율의 급변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일 뿐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선 이후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여기서는 이렇게 중요한 변수인 환율의 개념과 결정구조 그리고 방향에 대한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환율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종과 사용되는 언어가 복잡하듯이 통용되는 화폐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끔은 이런 언어와 화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상상해보지만 이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 같다.

화폐라는 존재가 필요 없던 고대사회에선 물물교환에 의해 서로의 필요한 물품을 바꾸어 사용하였을 것이고, 이 와중에 공통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 표준물의 필요가 대두되어 금(金)이 오랜 세월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경제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근대국가의 출현과 맞물려 더 이상 금만으로는 이런 가치기준의 역할이 한계에 봉착하자, 경제권역별로 다양한 화폐가 만들어지고 통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모든 화폐의 가치가 금과 연계되어 있었기에 상호간의 교환가치를 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최근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후에 체결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회의에서 금과 연계된 미국 달러 그리고 각국 통화와의 고정환율제도를 합의함으로써 통화간의 가치가 변동되는 문제는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쌓여가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로 달러의 내재적 가치가 붕괴됨으로써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기하고 달러와 금의 태환금지 및 변동 환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율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럼 변동 환율제도하에서 양국 통화간의 환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알아보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화폐는 금과의 교환이 불가능한 명목상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가치차이는 국가별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의 금리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이론적 환율결정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미국달러와 원화의 환율이 1:1,000 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년 5%, 미국의 기준금리가 년 2.5%라고 한다면, 1년 뒤에 오늘 기준의 원화 1,000원은 1,050원이 될 것이고, 1달러는 1,025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환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1년뒤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금리가 높은 통화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두 통화간의 가치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환율이다.

즉, 현재 기준인 원화와 달러의 1:1,000 교환가치를 1년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통화의 이자 금액 차이만큼을 환율로 감안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이 정해지는 환율은 $1:(1,050/1,025) = 1:1,024.40$ 이 되는 것이다. 이때 24.40원이 두 통화간의 금리 프리미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실제 환율은 이런 이론적 바탕 외에도 여러가지 내·외적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시시각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종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환율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환 시장이 개설되어 있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참가자(정부, 은행, 기업 등)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시장이라면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이론적 가격에 바탕

을 둔 환율로 거래가 되는게 정상이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나 해외시장의 동향, 그리고 참여자들의 시장정보에 대한 반응 수준이 달라 언제나 정상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과 같이 전세계적인 미국 달러의 약세화 추세로 환율이 지나치게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보유중인 달러를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일시적인 공급 초과 현상을 유발하여 환율하락을 방지하는 시장왜곡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러한 환율이 우리의 실 경제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환율은 기본적으로 일국의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금리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재테크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변수이다.

작년 여름 이후 본격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큰 폭의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미국 달러가 전세계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이상 급등을 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이 경우 달러 자산을 보유하기 보단 강세를 보이는 통화나 실물자산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하다는 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새정부 출범과 수출증대를 위해 세계적인 달러 약세 추세와는 반대로 원화의 환율이 예상과 달리 상승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당장 급등하는 유가와 곡물가에 환율상승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각종 물가지수는 연일 IMF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반해 소비자들의 지출부담이 늘어나 실질소득 감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초 원화강세 즉, 환율하락을 대비해 수출기업들은 KIKO(Knock-in Knock-out)등의 파생상품을 통해 미리 달러를 매각함으로써 기회이익을 놓치는 대신 오히려 환차손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해외펀드를 가입한 고객들의 경우에도 미리 선물환 계약으로 달러를 매각하는 바람에 펀드 손실외에 환율에서도 손해를 보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이렇게 환율은 방향을 잘 예측해서 맞출수만 있다면 환테크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키우는 결과가 올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송금이나 환전은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고, 외화예금을 활용하거나 해외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현금보단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며 선물환 계약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환율은 투자자산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지 환율 자체를 투자자산화 하는 것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이제 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외펀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기업들의 글로벌화 경향에 따라 경제부문에서 만큼은 이제 국내외의 경계선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더욱이 2007년 6월 이후 급격한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시행되면서 바야흐로 해외펀드 전성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외화로 환전을 해야만 해외펀드 가입이 가능했던 것이 국내펀드와 마찬가지로 원화로도 손쉽게 가입을 할 수 있고, 판매창구 또한 증권사 외에도 대부분의 은행이 취급을 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중 해외펀드 1,2개 정도는 보편화 되는 시대가 되었으며,

때마침 불어닥친 차이나 펀드의 광풍으로 해외펀드는 무조건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가입액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물론 전세계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MSCI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dex, 약 3조달러 규모)상으로 본다면야 아직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이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 분산투자 측면에서 보면 아주 효과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막연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만으로 선택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상품일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오늘날 미국경제의 동향을 모르면서 세계경제 또는 우리나라 경제의 향방을 논할 수 없듯이, MSCI 지수상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서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주식시장을 무시한채 국내 주식시장에만 투자를 해서는 적절한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대상이 국내 시장에만 한정되는 국내펀드와는 달리 해외펀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사실상 투자대상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펀드 보다는 한층 더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서 해외펀드를 선택할 때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한다.

□ 펀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해외펀드는 투자대상 지역이나 산업 등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펀드의 종류 또한 많으며 내용도 상이한 경우가 많아 가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크게 주의할 점으로는 환매시 기준가격의 적용일자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일자가 국내펀드와 다르며, 같은 이름의 펀드라고 해도 투자되는 국가나 지역의 비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차이나 펀드라고 해도 중국 내국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상해A 시장에 위엔화(CNY)로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주대상인 홍콩 주식시장에 달러(USD)로 투자하는 펀드도 있어 이름만으로는 정확한 투자대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 최근 유가상승으로 관심이 높은 중동·아프리카펀드 같은 경우도 운용사별로 투자대상 국가의 비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한 투자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운용사와 운용규모 확인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와 달리 대부분이 외국계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운용조직과 리스크 관리를 통한 장기간의 검증된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최근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운용사들도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운용기간이 짧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주로 이머징마켓 시장에 치중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편이다.

또한 동일 유형의 상품에도 몇 개 회사의 상품이 중복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럴 경우는 과거 운용성이나 자산운용사의 운용방침 및 총 운용기간과 설정액 규모를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지역별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위험 분산

해외펀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산의 지역별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별시장에 전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선진국, 이머징 시장 및 에너지, 부동산등 다양한 섹터의 펀드로 시장상황에 맞추어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매년 탁월한 성과를 보였던 시장은 일정기간을 두고 순환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분산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을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개별시장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글로벌 시장동향 점검

펀드는 가입만 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예금과 가장 큰 차이점일텐데, 마치 화초를 키우듯이 항상 돌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목표로 한 수익율이 달성 되면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도 해주어야 하고, 예상과 달리 시장이 좋지 못하다면 성과가 좋은 시장으로 빨리 전환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시장의 변동에 즉, 세계경제의 흐름에 눈을 뜨고 있어야 하며, 경제이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어젯밤 뉴욕시장의 주가 변동이 아직도 나오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재테크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투자통화 및 환헤지 여부 선택

해외펀드는 투자지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할 때 통화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원화는 물론 가장 일반적인 미국 달러, 유럽지역의 펀드는 유로(EURO)화, 일본은 엔(¥)화 등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2009년말까지 원화로 가입하는 펀드에 대해서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것보다 외화의 환율상승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외화로 가입하여 환차익을 얻는 것이 펀드의 수익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선물환 계약을 통해 펀드 가입기간 중이라도 환율의 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과세여부에 따른 선택

해외펀드는 투자대상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 내년말까지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해외펀드가 100%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형 펀드와 재간접 펀드 그리고 외화로 투자되는 역외펀드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주식형 펀드 수익 중에서도 주식 매매차익이 아닌 환차익이나 이자소득 등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오늘 살펴 본 환율과 해외펀드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금융상품에 비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어려워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효과적인 재테크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환율과 해외펀드에 대해 보다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세상은 넓고 투자할 곳은 많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준비된 자에게만 대박의 기회가 열려있음을 잊지 말고 언제나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 눈 뜨고 지켜보길 바란다. 🐷

